제주 '소나무재선충병 극심' 오명 벗었다

최근 1년새 고사목 5만그루 밑으로… 44% 감소
2013년 도 전역 확산되며 54만여그루 고사 피해

제주도가 소나무재선충병 극심 지역(1급) 오명을 7년 만에 벗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규모가 1년 사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며 고사목(말라 죽은 나무) 수가 5만그루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산림청에 따르면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1년 간 도내에서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돼 고사한 나무 수는 4만6226그루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18년 5월~2019년 4월) 8만3084 그루가 이 병에 걸려 고사한 것과 비교하면 44.4% 줄어든 것이다. 이로써 제주는 소나무재선충병 극심 지역에서 처음으로 벗어났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은 고사목 수가 5만그루 이상인 곳을 '극심' 지역으로, 3만~5만그루는 '심', 1만~3만그루는 '중', 1000~1만그루는 '경', 1000그루 이하면 '경미'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제주는 현재 '심' 단계에 해당한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2004년 처음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인됐다. 그해 9월 제주시 오라골프장 인근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처음 감염된 이후 2012년까지 8년간 도내에서 6만9000여그루가 이 병에 걸려 사라졌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이듬해 제주 전역으로 확산하는 등 창궐했다. 2013년 기후 영향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개체 수가 크게 늘면서 1년 만에 도 전역에서 무려 54만5284그루가 고사해 사라졌다. 제주는 이 때 처음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극심 지역에 포함됐다.

제주도는 2013년 9월 소나무재선충병 전담 조직을 꾸려 본격적인 방제에 나섰다. 이후 피해 고사목 수는 ▷2014년 5월~2015년 4월 54만4000여그루에서 ▷2015년 5월~2016년 4월 35만4817그루 ▷2016년 5월~2017년 4월 22만7558그루 ▷2017년 5월~2018년 4월 13만3910 그루로 해마다 줄었고, 이듬해 처음으로 10만그루 미만으로 떨어졌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규모가 7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올해 기준으로 제주지역 피해 규모는 경북(13만4330여그루), 울산(7만4187여그루)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3번째로 크다.

산림청은 앞으로 고사목 전수 점검과 이력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우려목 사전 제거와 예방 나무 주사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비접촉 근거리 통신(NFC) 전자 예찰함 설치와 비가시권 지역 드론 예찰, 초근접 드론 방제, QR 코드를 통한 고사목 이력 관리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방제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퍼져나가는 선단지를 축소하는 한편 주요 소나무림 보호를 우선 목표로 확산 저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국제전기차엑스포, 글로벌 화상회의 연다

15개국 연결… 6월17~20일 제주ICC서 개최

제7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세계전기차협의회(GEAN)와 공동으로 오는 6월 18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15개국을 연결, 온라인상에서 '글로벌 EV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직위는 지난해부터 세계 전기차 트렌드를 조망하고 각국의 대응 방향 및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유럽, 아시아, 북미 등 권역별로 글로벌 EV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있다.

세계전기차협의회 회원 및 국내·외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가하는 이 행사는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EV)로의 변화에 따른 산업적 대응 방향'을 주제로 마련된다.

장용웨이 중국전기차100인회(ChinaEV100) 비서장이 기조연설에 나서며 알리 아이자드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 연구실장을 좌장으로 유럽, 북미, 아시아권의 주요 전기차 리더들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

조직위는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비대면' 포맷 도입을 확대, EV 라운드 테이블을 글로벌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올해 엑스포 사전등록을 한 관람객은 공식 홈페이지(www.ievexpo.org)에서 EV 라운드 테이블을 비롯해 다양한 콘퍼런스를 시청할 수 있다.

제7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는 오는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전동화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라'를 주제로 진행된다.

조직위는 '방역 엑스포'에 초점을 맞춰 주요 프로그램에 '비대면' 포맷을 도입하는 한편 글로벌 콘퍼런스와 B2B 상담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일부 전시도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신재생 등 에너지 관련 국내·외 기업 전시와 전기차 표준 포럼 등 다양한 주제의 글로벌 컨퍼런스, 기업들의 실질 매출로 직결되는 B2B, B2G도 마련된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석해야"

오영희 의원 조례안 발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참석시키는 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오영희(미래통합당·비례대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6일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구체적 사항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질적으로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례가 거의없다.

이에 개정조례안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교복 및 체육복 선정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할 때는 학생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황금연휴 끝나니… 렌터카 '스톱' 5월 황금연휴가 끝난 6일 제주시 용담2동 한 렌터카 업체 주차장이 차량들로 가득차 있다. 강희만기자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 점검

서귀포시 10월까지 390곳

서귀포시는 6일 가축 질병의 효과적 관리 등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점검반을 구성해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이달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실시하며 점검대상은 종축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등 관내 390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차량 소독 시설과 진입 차단 시설 ▷울타리(담장) 시설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 소독과 방역 시설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며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의약품·농약 사용 기준, 축산업 교육 수료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또 올 3월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가 기존 2년에서 올해부터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자 점검을 더욱 강화해 친환경 축산업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소상공인·관광시설 하천 점용료 감면

도, 1년치 중 3개월 분량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하천 점용료 3개월분을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하천점용료는 제주도가 지방하천 내 하천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1년 치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재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감면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기존 '하천법'상에서는 '홍수 등 자연재해'에서만 감면이 이뤄졌지만 이번 코로나19에도 확대·적용하게 되면서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감면 대상은 레저스포츠, 식당, 음식점 등 지방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민간사업자로서 감면규모는 하천 점용료 1년 치 중 3개월 분(25%)이다. 이미 부과·징수된 경우에도 실제 부과액에 대해 소급해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또 하천 및 공유수면에 위치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화재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도 적용해 재해에 의해서도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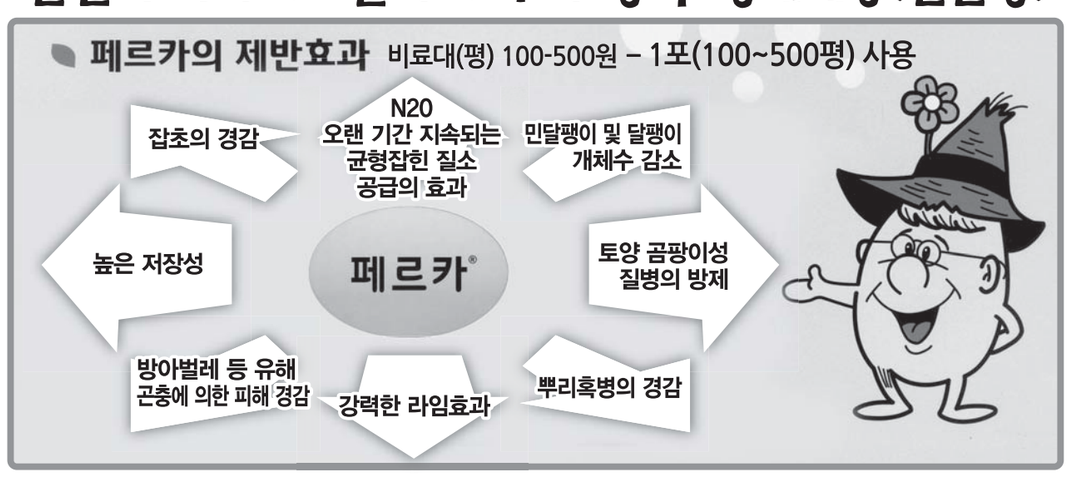
오은지기자

시설물 안전진단기관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2~27일 도내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1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각종 신고적정 여부 등 관리실태를 점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점검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를 비롯해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이뤄진다. 이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진정한 제주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 1포(100~500평) 사용


취급품목 아미노산, 휴믹산, 풀빅산, 해조박, 유황제품 (50~100)평 사용 100%발효 : 유박, 퇴비제품
관주엽면시비용 칼슘제, 색상, 당도, 뿌리발근, 생육촉진, 억재제, 광합성지원제품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농약없이 감자·당근·양파재배 성공
고품질 농산물 생산 ⇒ 하하농법이 최선이다
썰파고와 V패스로 농약없이 재배한 농가가 있어
동네 농업인들 사이 소문이 자자하다고
썰파고 · 나노 유황으로 만든 320여가지 농약성분이 없으며 살균 · 살충 효과가 있다
V패스 · 양자에너지와 희토류 생분해 복합제재로 세균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물의 회복과 면역력 증강으로 식물 우성세포의 복원을 촉진시킨다
당근 생산농가 구좌읍 세송로 김 정 애 (010-5036-1235)
양파 생산농가 대정읍 신도리 문 형 원 (010-2698-2476)
감자 생산농가 대정읍 상모리 박 성 국 (010-3030-0907)
브로콜리, 양배추, 무우, 마늘 등에도 좋은 효과가 나타나 기대가 됩니다 (초기 살충제 혼용)
농가에서는 농약값이 절반으로 줄어 하하 웃는 모습이 정말 좋아요
(주)포트라 제주지사
제주지사장 부 영 인 H·P 010-2633-5349